

여성비평으로 다시 읽는 조이스의 「에블린」과 「진흙」

김 소 연

1. 조이스와 여성비평

조이스(James Joyce)는 “남성 우월주의자나 여성 혐오주의자”인가(Heilbrun 215)? 이러한 의문은 그가 20세기 최고의 소설가라고 칭송받는 한편, 그의 여성에 대한 태도는 문제시되어 왔기 때문에 제기되었다. 반면, 조이스가 여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심지어는 페미니스트적인 면모가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또한, 조이스에 대한 이러한 상반된 평가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우선, 조이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관해서는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이 없이 단편적인 부분에 지나치게 시각을 편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박윤기 284). 그리고 조이스에 대한 상반된 평가는 “조이스에 대한 페미니즘 비평에서 일어나는 가장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는 사실적이지자 방법론적인 오류”이며, 이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이스 작품에 있는 여성 인물들의 논란이 있는 위치에 대한 자세한 검토”(Oh 146)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주장은 조이스의 여성에 대한 태도를 단순히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두 학자의 주장은 모두 조이스의 작품에 등장하는

많은 여성을 종합적이고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그의 작품 속 여성들은 단편적이고 고정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Lawrence, “*Odyssey*” 77). 따라서 조이스 작품의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여성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일련의 변화나 흐름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도가 필요하다.

조이스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들 제반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쇼월터(Elaine Showalter)의 여성비평(gynocritics)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는 『그들만의 문학』(*Literature of Their Own*)에서 여성비평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브론테 자매(The Brontë Sisters)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종단 연구하여 그곳에 나타나는 변화의 흐름을 읽어냈다. 쇼월터는 여성 작가들의 문학이 여느 다른 문학적 하위문화의 변화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세 단계로 분류될 수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기존의 지배적인 전통에 순응하고 모방하려는 ‘여성다운 단계’(feminine phase), 두 번째는 기존의 기준과 가치 체계에 반발하여 소수의 권리와 가치를 옹호하는 ‘여성해방의 단계’(feminist phase), 마지막으로 자신의 내면으로 눈을 돌려 자아를 탐색하는 ‘여성의 단계’(female phase)이다(Showalter 13). 쇼월터의 여성비평은 여성 작가들의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조이스의 작품 역시 여성비평을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여성비평은 여성 문학의 변천사가 하위문화의 변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보았는데, 조이스는 아일랜드라는 영국의 식민지인 하위문화에서 성장하였고 그 배경을 작품에 철저하게 반영했기 때문이다. 또한, 쇼월터가 여성적 글쓰기와 여성의 글쓰기를 연구하면서 생물학적인 여성 작가로 대상의 범주를 한정시켰지만, 여성적 글쓰기의 개념이 시초가 된 *L'Écriture féminine*(feminine writing)에서 “불어 *feminine*은 영어의 *female*이나 *feminine*보다 더 넓은 범위의 의미를 포함”한다(Kim 144).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여성적 글쓰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남성이라고 해서 여성적 글쓰기를 못 하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이다. 식수(Hélène Cixous)는 “억압에 저항하는 여성, 동등한 여성, 당당한 주체로서의 여성, 그러므로 현실적인 사회 틀 안에서는 유지 불가능한, 그러니까 ‘불가능한’ 멋진 주체로 형성될 여성을 생각할 능력이 있는 남자”들이 존재한다고 믿었으며(17), 그녀의 박사 논문을 통해 조이스가 그러한 남성 작가라는 사실을 주장했다. 크리스테바 역시 “전복적인 힘”을 지닌 시적 언어를 조이스의 작품이 구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Kim 145 재인용). 조이스의 여성적 글쓰기

의 특징을 옹호하는 여성 페미니스트들의 이러한 주장은 그가 남성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통찰력을 갖고 여성들의 삶을 관찰하였으며 무한한 상상력으로 그들의 내면을 작품 속에 표현했음을 뒷받침해준다. 따라서 여성비평을 활용하여 조이스의 작품 속 여성들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타당할 것이다.

본고는 조이스의 작품 중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의 두 단편을 골라 분석함으로써 여성비평을 활용한 조이스 작품의 연구에 대한 첫발을 딛고자 한다. 『더블린 사람들』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조이스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창작하였다. 그는 “마비의 중심”으로 보이는 더블린을 “조국의 도덕적 역사의 한 장”으로 쓰고자 했다(*SL* 83). 조이스가 그의 의도대로 작품에 더블린의 당시 상황을 그대로 기록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더블린의 사회적 삶에 대한 조이스의 묘사는 역사적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의 작품 속 다양한 여성의 삶의 모습 또한 “다양한 사회적 자료로부터 가지고 온 완전하고도, 입증 가능한 사실들로 증명”된다는 평가가 있다(*Walzl* 53). 즉, 조이스는 당시 더블린의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가진 다양한 인물들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주도면밀하게 표현하였다. 따라서 조이스의 작품 속 여성들을 살펴보면 당시 사회상뿐만 아니라 그 환경 안에서의 여성의 삶 또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에블린」(“Eveline”)과 「진흙」(“Clay”)은 억압된 여성의 삶을 세밀하게 묘사한 작품으로, 당시 아일랜드 상황에서 여성다운 단계의 인물들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다.

「에블린」의 에블린(Eveline)과 「진흙」의 마리아(Maria)는 『더블린 사람들』의 대표적인 미혼 여성이다. 이들을 둘러싼 가장 큰 주제 의식은 남성과 결혼이다. 젊은 에블린은 결혼을 통해서 자기를 속박하는 가정으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하지만 좌절한다. 나이트 마리아에게는 에블린 같은 선택권조차 없으며 그저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며 살아갈 뿐이다. 두 미혼 여성의 이야기는 당시 대기근 이후 악화된 아일랜드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 아일랜드 내에 일자리는 넉넉하지 못했고 특히 여성들에게는 일자리가 더욱 제한되었는데, 이는 남녀의 사랑과 결혼에 영향을 끼쳐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거나 적어지게 만들었다(*Walzl* 33-37). 따라서 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있는 여성들은 더욱더 결혼을 통한 안정된 삶을 꿈꿀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쇼윌터에 따르면 결혼이라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남성을 통해 돈, 유동성, 권력을 소유하려는 여성은 여성다운 단계에 해당한다. 실제로 두 인물은 여성다운 인물로 평가받는데, 에블린은 “가부장제에서 여성

성의 정수를 상징”하는 인물이며(Ingersoll 506) 마리아는 “남성이 삶에 있을 때만 여성의 삶이 완벽하다는 이데올로기적 개념”을 가진 인물이다(Williams 449). 그렇다면 두 미혼 여성인 에블린과 마리아가 결혼과 남성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전통적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는 여성다운 단계의 인물인지 알아보겠다. 이러한 시도는 여성비평을 통해 작품을 분석하였을 때 조이스가 여성들을 통해 밝히고자 한 것은 무엇인지 살피고 여성에 대한 그의 태도를 재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11. 여성다운 단계의 젊은 미혼 여성: 「에블린」의 에블린

에블린은 『더블린 사람들』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 중 대표적인 젊은 미혼 여성이다. 젊은 미혼 여성에게 결혼은 가장 큰 당면 과제였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당시, 여성들에게 “신랑 측의 돈과 자산을 습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졌던 결혼은(Walzl 35) 특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결혼 적령기의 여성인 에블린 또한 결혼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에블린은 결혼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에블린에게 결혼은 경제적 안정의 수단인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가? 조이스는 결혼 적령기의 미혼 여성 에블린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였는가? 그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봄으로써 그녀가 여성비평의 세 단계 중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그녀에 대한 조이스의 태도를 알아보자.

「에블린」의 첫 장면에서, 길가에 침입한 어두운 저녁처럼 에블린의 머릿속을 침입한 건 다른 모든 사람처럼 “집을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이다(D46). 막상 떠나려는 집을 둘러보니 그곳은 그녀가 수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먼지를 털어낸 공간일 뿐이다. 벽에 걸려있는 노랗게 변색되어 가는 사진 속 인물이 누군지도 모른 채, 사용하지도 못하는 망가진 오르간과 엄격한 금욕생활을 한 수녀의 12가지 약속이 걸려있는 집이라는 공간을 에블린은 먼지를 털어내며 살아왔다. 어머니도 죽고 다들 떠난 집을 에블린도 떠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에블린은 19살이 넘어 독립할 나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이 현명한가?”라고 따져본다(D46).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경제적인 요소인 “술 곳과 음식”이다. 당시 아일랜드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으며, 특

히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는 남성들보다 더욱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하고 현실적인 고민이다(Walzl 37). 실제로 에블린이 일하고 있는 곳은 그녀에게 힘들고 고되므로 일자리를 버리는 것은 큰 고민이 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가 일자리를 버려도 된다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경제력이 해결된다는 말인데, 이 장면에서 에블린의 독립이 혼자만의 결정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암시가 나온다. “한 남자와 도망쳤다”라는(D46)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미리 걱정하고 있는 에블린에게는 남자가 있다.

에블린의 독립은 한 남자와 도망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에블린은 알지 못하는 먼 나라에서 결혼을 통해 독립할 것이다. 그녀는 결혼하면 “사람들이 그녀를 존중할 것”(D47)이라고 짐작한다. 미혼인 그녀의 현재 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녀는 결혼을 통해 여성으로서의 존중을 얻으려 한다. 그녀는 폭력적인 아버지의 위협 아래 놓여있다. 어렸을 때는 어니스트와 해리라는 남자 형제들이 아버지의 폭력을 받아냈지만, 그들이 부재한 지금 아버지의 폭력은 에블린을 향해 있다. 돈을 벌어도 아버지한테 모두 뺏기는 현실이 그녀에게는 벽차다. 그러나 에블린은 “막상 떠나려고 하니 (집을 지키는 것이) 완전히 못 할 일도 아니다”라고 생각한다(D48). 아버지의 폭력과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는 고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그녀가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녀가 그 남자와 도망가는 것에 관해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당시, 왜 에블린은 도피와 결혼을 부담스러워하는 걸까? 그녀는 같이 도망가기로 한 프랭크라는 남자에 대해 생각한다. 그는 “친절하고, 남자답고, 너그럽다”(D49). 그러나 그녀의 생각처럼 그는 친절하고 남자답고 너그러운가? 에블린은 그와의 첫 만남에서부터 따져본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그는 선원이었고, 먼 나라 이야기를 들려줬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경제적으로 자리 잡았고 더블린에는 휴가차 온 것이었다.

그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다가 운 좋게 자리를 잡았다고, 그가 말했다, 그리고 휴가차 오랜 조국에 들렀다고도. 물론, 그녀의 아버지는 관계를 알아채고는 그녀가 그에게 말조차 걸지 못하도록 했다.

-난 이런 선원 녀석들을 알아, 그가 말했다. (D49-50, 필자 강조)

당시 여성들에게 남성의 경제력이 결혼의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프랭크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언급이 객관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그가 말했다’라고 양쪽에 심표를 넣어 강조한 것을 보면, 프랭크의 경제적 안정은 증명된 것이 아니라 그의 말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프랭크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어도 될지, 에블린처럼 독자들을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신중하고도 교묘한 장치이다. 에블린은 말뿐인 프랭크의 경제력을 믿어도 될까? 심지어 아버지조차도 선원들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에블린과 프랭크의 사이를 반대한다. 여성다운 단계의 인물인 에블린은 경제력을 남성인 프랭크에게 의존하려 하지만 프랭크에 관한 서술은 그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는다. 따라서 그녀가 프랭크의 경제력을 신뢰해도 될지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

집을 떠나려고 해리와 아버지에게 편지까지 썼건만, 에블린은 길가에서 들려오는 오르간 소리 때문에 옛 생각에 다시 빠지고 만다. 이번에 그녀를 붙잡는 것은 “집을 되도록 오래 지키겠다는 어머니와의 약속”(D 50)이다. 여성인 에블린을 속박하고 제한하는 것은 가부장제의 남성인 아버지로 나타나지만, 같은 여성끼리도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대물림할 수 있다. 바로 에블린의 어머니 경우가 그렇다. 자신이 한 가정에서 희생당하고 마침내는 “미친 채 생을 마감하는 희생의 삶”(D 51)을 살았으면서 에블린에게 그 희생과 죽음의 공간인 가정을 지키라고 한 것은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대물림하는 여성들의 하위문화를 반영한다. 그러나 에블린은 그런 어머니의 종말을 기억해내며 갑자기 엄습한 공포에 벌떡 일어나 도망쳐야 한다는 다짐을 굳힌다.

그녀는 갑자기 엄습한 공포에 사로잡혀 서 있었다. 탈출해야 해! 그녀는 탈출해야만 한다! 프랭크가 그녀를 구해줄 것이다. 그가 그녀에게 삶을, 아마도 사랑도 가져다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살고 싶었다. 왜 그녀는 불행해야만 하는가? 그녀는 행복할 권리가 있었다.** 프랭크는 그의 품에 그녀를 안고, 그녀를 꼭 안아 줄 것이다. 그가 그녀를 구해줄 것이리라. (D 51, 필자 강조)

위에 인용된 에블린의 내면의 소리는 이 소설의 가장 핵심적인 장면으로, 마지막에 그녀가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마비된 채 남겨지는 이유를 암시한다. 그녀가 당장 지금의 현실에서 떠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머니의 죽음으로 미리 보았다. 어머니처럼 미쳐서 죽지 않으려면 에블린

은 집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떠나야만 한다. 하지만 그녀를 구하는 것은 그녀 자신이 아닌 프랭크라는 또 다른 남성이다. 그가 과연 에블린의 기대처럼 그녀에게 삶과 사랑을 줄 것인가? 에블린은 이런 낭만적 환상에 빠져있다가도 얼른 자신의 가장 절실한 욕망을 기억해낸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다른 남자가 제공하는 삶과 행복이 아니다. 그녀는 “행복할 권리”가 있으므로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행복해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는 그녀는 결국 그런 삶을 프랭크가 줄 것이라는 결론으로 다시 빠지게 되어 남성을 통해 삶을 얻으려는 허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 에블린이 마지막으로 프랭크와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녀의 탈출이 프랭크라는 남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에블린이 프랭크와 떠나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측할 수 있다. 첫째로는 그녀가 프랭크와의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쉼터와 음식을 제공하는 안전한 집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케너(Hugh Kenner)는 에블린이 집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평생 후회하며 삶을 보낼 것”이라고 추측한다(21). 그 이유는 작품에 잘 나와 있다시피 그녀의 집은 아버지의 폭력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쉼터와 음식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녀는 가정에 의해 희생된 어머니처럼 그녀 또한 “그녀에게 적절한 장소인 가정이라는 매우 일반적인 허구에 굴복”하는 희생양이다(Mullin 198). 두 번째 이유로는 첫 번째 이유와 연결되는 것으로 프랭크와의 도피가 그가 말한 것처럼, 혹은 에블린이 상상한 것처럼 멋지지 않기 때문이다. 멀린(Katherin Mullin)은 그 당시 유행했던 이민 선전에 에블린이 노출되었다고 말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당시 많은 아일랜드인이 이민을 꿈꾸었는데, 바로 그 욕망을 겨냥한 이민 선전이 횡행했다. 따라서 “멋진 모험과 탈출이 함축”(Mullin 180)된 부에 노스아이레스로의 도피가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닌, 그 당시 이민을 선전하던 분위기에 노출된 에블린의 허상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프랭크와 에블린의 관계가 동등하지 않다는 결점이 있다. 두 사람 관계의 불평등함은 그가 그녀를 부르는 “꼬마 아가씨”(poppens)(D 49)에서 알 수 있다. 그 명칭은 “프랭크의 극진한 애정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자기 의지로는 움직일 수 없는 존재를 가리키므로 낭만적인 사랑과 결혼으로 현실의 질곡을 암시할 뿐”이다(안정숙 84). 즉 프랭크와 에블린은 동등한 관계가 아닌 “지배와 종속 관계”로 그들의 관계가

“아버지/에블린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임경규 35). 에블린이 아버지의 폭력으로 가득한 집을 나와 프랭크와의 결혼으로 새 삶을 꿈꾸는 것은 남성을 통해 권력, 이동성, 돈을 얻으려는 전형적인 여성다운 단계의 인물의 행동이다. 남성인 아버지의 폭력에서 벗어나 보려 하지만 결국 남성인 프랭크와의 결혼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자유라면 또 다른 속박이나 다름없다. 에블린이 프랭크와의 도피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이런 사실을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에블린에게는 여성다운 단계를 벗어날 희망이 있는가?

프랭크와의 도피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에블린의 모습을 “무력한 동물처럼 수동적”(D 52)이라고 묘사한 조이스와 달리, 에블린의 선택하지 않음이라는 선택을 긍정적으로 본 학자들이 있다. 우선 레이네어스(Laura Barberan Reinares)는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프랭크의 정직성에 의문을 품었다. 프랭크가 들려주는 “끔찍한 파타고니아인의 이야기”(D 49)는 당시 “파타고니아인에 대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과 유럽인들이 남미에 가서 원주민들을 대량 학살하여 “원주민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라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봤을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는(Reinares 530). 즉 원주민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고, 오히려 원주민을 학살한 유럽인이 끔찍할 터인데, 파타고니아인들이 끔찍하다고 말한 그 이야기는 프랭크가 이야기를 꾸며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당시의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매춘이 만연화된 “국제적인 유대인 범죄인들”의 온상지나 다름없었기 때문에(Reinares 531) 그는 프랭크와의 도피를 선택하지 않은 에블린을 무력한 동물이 아닌 “신중한 여성”이라고 평가했다(529). 임경규는 에블린을 서벌턴이라고 규정하며 “서벌턴이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그리고 남성중심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조화된 공간 내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주체들이 아니”(38)지만 나름의 방식대로 “자신들만의 공간을 생산”(38)해내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공간을 생산해내는 “그들의 움직임을 해석할 수 있는 언어가 부재”(39)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에블린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표현하는 언어가 없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에블린의 마지막 선택이 마비로 보일지라도 “그녀에게 있어 해방”(43)의 공간이 될 수 있다. 두 학자의 주장처럼 에블린이 남성을 통해 삶의 탈출구를 찾으려 했던 선택을 포기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만 하다. 프랭크는 신뢰할 만한 남성이 아니었고, 에블린은 선택하지 않음을 선택함으로써 그녀

만의 해방의 공간에 남았다. 만약 프랭크를 통해 더블린을 벗어나 신세계로 도망쳤다면, 그것은 남성을 통한 이동성 획득으로 여성다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결론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필자는 에블린이 프랭크를 포기하는 결정적 장면에서 의존하는 것이 자신의 자유의지나 이성적 판단이 아닌 가톨릭이라는 종교라는 점에서 에블린의 마지막 장면이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다고 본다.

그녀는 뺨이 창백해지고 차가워짐을 느꼈고, 고통의 미로에 빠져, 그녀는 신에게 그녀를 인도해 달라고, 그녀에게 그녀의 의무가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기도했다. (D51)

그녀의 고통은 그녀의 몸에 메스꺼움을 유발했고 그녀는 조용하고도 강렬한 기도로 그녀의 입술을 계속 달싹였다. (D52)

배에 오르기 직전에 선택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번민으로 꽉 차 어지럼증이 날 정도의 긴박한 순간에 에블린이 찾은 것은 가톨릭의 신이었다. 당시 아일랜드 국교인 가톨릭은 여성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또 다른 기제였다. 아버지를 벗어날 수도, 프랭크를 선택할 수도 없었던 에블린에게 의지할 곳이 가톨릭이었다는 점은 에블린이 여성다운 단계를 벗어날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에블린에 대한 조이스의 태도는 어떠했을까? 조이스는 자신의 전기적 상황을 반영하여 에블린이라는 여성다운 단계의 하위문화 여성을 주인공으로 작품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 조이스는 유럽으로 망명할 때 여관 여급이었던 노라(Nora Bernacle)에게 같이 떠나자고 설득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노라가 가난한 예술가와 함께 유럽으로 도망친다는 것은 마치 에블린이 프랭크와의 불확실한 미래를 가늠하는 장면처럼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이다. 조이스가 노라와 자신의 경험을 에블린이라는 인물을 통해 표현하였다면, 에블린이 아버지와 프랭크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노라와 함께 겪었던 그 번뇌와 고민을 독자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것, 즉 “인생을 바꿔 놓을 만한 선택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절망적인 불확실성을 독자가 경험”(Norris 58)하게 하려는 것이 작가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 있다. 비록 에블린은 여성다운 단계에 머물며 작품이 마무리되었지만, 조이스는 노라와 같은 처지의 여성들에게 깊은 연민과 공감을 보이며 「에블린」을 탄생

시켰다. 그리고 조이스는 에블린에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열린 결말을 주었다. 비록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상태가 마비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에블린의 미래에 대해 속단해서는 안 된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행복해질 권리를 알고 있으므로 그녀의 미래 역시 여성다운 단계에서 마무리될지는 작가도, 독자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III. 여성다운 단계의 나이든 미혼 여성: 「진흙」의 마리아

「진흙」의 마리아는 미혼의 여성이며 결혼에 대해 생각한다는 점에서 에블린과 공통점을 갖는다. 하지만 「진흙」에 사용된 서술 전략은 「에블린」과 다소 차이가 있다. 「에블린」의 서술은 3인칭 전지적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서술 대부분을 그대로 신뢰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 반면 「진흙」의 서술은 3인칭 시점이긴 하지만 내용상 모순이 발견되어 서술 방식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리아는 당시 여성에게 주어진 사회적 가치인 아름다움, 남편, 아이, 가정, 부, 지위 중 어느 하나 가진 것 없는 초로의 미혼 여성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녀는 『더블린 사람들』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딱한 처지에 놓인 인물”로 보인다(박소영 91). 그런데 작품의 서술자에 따르면 가장 비참한 인물인 마리아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독자는 서술자를 있는 그대로 신뢰해도 될까?

브라운(Terence Brown)은 조이스의 문체적 특성을 자유간접화법(*free indirect discourse*)이라 지칭하는데, 이는 “인물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처럼 삼인칭 주어를 사용하는 문장을 구사하는 한편, 그 인물의 습관적인 어투와 표현들을 그 안에 사용함으로써 인물의 의식을 반영”하는 방법을 가리킨다(박소영 93 재인용). 이와 비슷하게 커쉬너(R. B. Kershner)는 이 작품에 사용된 접근법을 자유간접방식(*style indirect libre*)이라고 하였고, “서술의 전반적인 인상이 객관적”인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전반적인 서술이 마리아의 의식에 의존”하는 “하나의 연장된 인물의 구역”이라고 하였다(104). 브라운과 커쉬너는 모두 「진흙」의 서술자가 3인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마리아의 의식을 반영하는 1인칭 서술자나 다름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즉 서술자가 아무리 객관적인 묘사를 하는

것 같더라도 인물의 의식을 반영하는 주관적인 묘사가 끼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조이스의 이러한 서술 기법의 의도는 무엇인가?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결핍의 인물인 마리아의 내면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조이스는 3인칭 서술자의 입을 빌려 “마리아의 욕망을 말하게 하고” 있다(Norris 143). 그리하여 독자는 3인칭 서술자 언어의 객관성과 1인칭 서술 내용의 주관성의 괴리를 느끼는 순간 작품의 서술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작품 속에 나타난 인물의 욕망을 살피게 되는 것이다. 이는 마리아가 직접 자신의 욕망을 1인칭 시점에서 서술할 때보다 독자가 더 능동적으로 마리아의 욕망을 추적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필자는 3인칭 서술자의 입을 빌려 나타난 마리아의 욕망이 여성다운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살피고 그녀에 대한 조이스의 태도를 알아볼 것이다.

마리아는 전형적인 아일랜드의 여성상인 ‘처녀’와 ‘가난한 노파이자 어머니’의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성모 마리아(Virgin Mary)를 떠올리게 하는 것과 같이, 그녀는 미혼의 나이든 여성이면서 동시에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모습은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상과 닮아있다. 빅토리아 시대의 이상적인 여성상은 “집안의 천사”이자 “감정에 대해 전문적인 조절자”이며 “친절하고, 사려 깊고, 자기희생적이며, 분별력 있고, 성적 도락에 대해서는 무지하면서도 외면하는” 모습이다(Inglist 14 재인용). 그리고 마리아는 그런 역할 수행에 “수동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동조하여”(Williams 451)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데 이바지하는 여성다운 단계에 해당하는 모습을 보인다.

마리아는 윤락여성을 위한 신교의 자선 교화기관에서 식모를 하며 살아간다. 그녀는 그들의 어머니처럼 밥을 해주고 관계를 중재하며 돌본다. 그녀는 그곳 여성들이 “싸움을 벌일 때마다 불러가서 화해시키는 데 성공한다”(D 138). 진저 무니(Ginger Mooney)는 “마리아가 아니었으면 병어리 여자에게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르겠다”라고 한다(D 139). 그녀는 타인의 감정을 다루는 것에 능숙한 화해 중재자이다. 그런 그녀를 두고 서술자는 마리아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빌어 칭찬한다. “마리아, 당신은 진정한 화해 중재자야!”(D 138)라던가 “모든 사람이 마리아를 매우 좋아했다”(D 139) 같은 찬사는 작품 초반이라 눈치채기 쉽지 않지만, 마리아 자신의 욕망을 반영하는 자유간접화법이다. 작품 초반에 서술자는 마리아의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녀의 말투를 전반에 분포시키는데, 그 습관은 “매우”(very), “굉장히”(so, such), “하지만”(but) 같은 어휘를 유난히 반복해서 쓰는 것으로 나타

난다(Lawrence, “Who’s Afraid” 21).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객관적인 사실을 진술하다가 마지막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말을 마치기 위해 자신에 대해 칭찬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마리아는 자기가 매우 작고, 긴 코와 긴 턱을 가진 것처럼 불품없어 보일 수 있지만, 자신은 싸움을 잘 말리고 화해를 잘 시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자랑한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했던 말들로 문단을 정리함으로써 자존감을 지킨다. 그러나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는 자신의 역할은 빅토리아의 이상적인 여성상인 화해 중재자, 감정의 조절자의 모습이다. 그녀는 그런 역할 수행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동조한다.

미혼인 마리아가 어머니 역할을 수행한 것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다. 그녀는 자신의 친아들이 아닌 조(Joe)와 엘피(Alphy) 형제를 키워냈다. 마리아는 두 아이를 키운 어머니의 역할 수행에 대해 남의 칭찬을 통해 인정받고 싶어 한다. “엄마는 엄마지만, 마리아가 나의 진짜 엄마야”(D 141)라는 마리아에 대한 조의 칭찬은 그녀가 훌륭한 어머니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점에 대해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을 보여준다. 훌륭한 어머니상은 빅토리아 시대 영국과 아일랜드의 사회 모두가 여성에게 부여한 역할이다. 마리아는 미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이들을 키워냈다는 것에 뿌듯해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독립한 후에는 자식 대신 온실에서 “사랑스러운”(lovely) 화초를 가꾸으로써 키우고 기르는 역할을 지속하는데(D 141), 이것 역시 손님들이 올 때마다 조금씩 나눠주며 자신이 여전히 엄마처럼 무언가를 양육한다는 점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

마리아는 화해 중재자와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며 타인의 감정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도 능숙하다. 그녀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덮어 버리는 전략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마리아는 신교도들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었지만 “어쨌든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다”(D 141)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덮어버린다. 또한, 벽에 있는 소책자도 맘에 들지 않지만, “감독관은 함께 하기에 매우 좋은 사람이고, 매우 친절하다”(D 142)라며 역시 덮어 버린다. 이는 서술자의 객관적 진술이 아닌, 마리아의 언어습관이 들어간 그녀의 생각이다. 이렇듯 이 작품은 마리아의 언어와 생각이 서술자의 입을 통해 드러난다. 서술자를 통해 드러난 마리아의 성격에는 자신의 감정 조절에 능숙하며 긍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요소들을 덮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집안의 천사’, ‘전문적인 감정 조절자’ 같은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의 특징과 유사하다.

그러나 마리아는 집안도, 자식도 없는 미혼의 여성이다. 그런 그녀에게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의 중요한 관심사는 바로 결혼이다. 세탁소 여성도 그 사실을 알고 마리아에게 헬러인 때 결혼을 상징하는 반지를 잡을 거라고 놀린다. 마리아는 남자도 반지도 필요 없다고 웃어넘기려 하지만 그런 그녀의 눈은 “실망한 부끄러움”으로 눈물이 맺혔는지 반짝인다(D 142). 마리아의 건강을 기원하며 식사 자리는 마무리되고 마리아는 서둘러 작은 자기 방으로 올라가 거울에 옷을 고르며 거울에 자신을 비춰본다. 그녀는 자신의 소녀 시절을 생각하며 소녀처럼 옷을 갈아입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애정 어린 눈으로 쳐다본다. “긴 세월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담하고 야무진 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리아는(D 143) 이번에도 특유의 긍정성으로 불품없는 자신의 몸에 대한 칭찬으로 마무리한다. 그녀는 자신이 나이 들고 불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이에 비해 괜찮은 외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 그래서 조와 엘피 가족들에게 선물로 사 갈 케이크를 한창 고르는 중에 “결혼 케이크”를 고르냐는 “멋진 차림의 여성”의 짜증에도 마리아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미소를 지을”뿐이다(D 144).

세탁소에서 벗어나 조와 엘피의 집으로 가는 길은 마리아에게 허락된 이동의 공간이자 그녀의 환상이 현실이 되는 공간이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 중년 남성을 만나게 된다. 젊은 남자들은 마리아에게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지만, 그는 갑자기 나타나 유일하게 자리를 내어준 왕자님 같은 존재이다. 마리아는 그가 “대령의 외모를 한 신사”(D 144)라고 생각하고 숙녀처럼 행동한다. 그녀는 “그에게 동의하고 얌전하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헛기침을 하며 그에게 호의를 보인다.” 그 모습은 마치 정숙하고 얌전한 빅토리아 시대의 숙녀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그 남성과의 만남은 거기까지였다. 마리아는 “신사란 알아보기 참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빨간 얼굴”이 암시했듯이 “그는 술 한 잔 마신” 한 중년의 남성일 뿐이었고, 마리아와 나눈 대화는 취중이었으며 그녀와 더 진전될 관계가 아니었다(D 144-45). 한 번에 지나지 않을 이 남성과의 만남과 대화 때문에 마리아는 특별히 샀던 케이크를 전차에 두고 내리게 된다. 그녀가 남성과의 만남에서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긴장하며 정신없었는지 보여주는 부분이다.

마리아가 가장 기대했던 조와 엘피의 집에서의 저녁 식사는 잃어버린 케이크로 인해 순조롭게 출발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리아는 “아이들이 매우 행복하고 조

와 그의 부인이 기분 좋은 것을 보고 기뻐했다”(D 147). 그러나 독자들은 서술자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아이들은 없어진 케이크를 훔쳐 먹었다고 오해를 받았고 조와 조의 부인은 엘피의 이야기로 기분이 상했으며, 조는 계속 술을 마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서술에 모순이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요소를 긍정적인 것으로 덮어 버리는 그녀의 성격이라면 마리아가 보기에 아이들과 조 내외는 행복해야 했고 그래서 그녀는 기뻐야 했다. 작품의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독자는 마리아의 욕망이 드러나는 서술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서술 간의 괴리를 알아차리게 된다. 이는 마치 눈을 가리고 물건을 고르는 헬러윈 저녁 행사 처럼, 독자는 마리아의 욕망의 언어로 눈이 가려진 채 진실을 골라서 파악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이 고른 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말하지 않고 “부드럽고 축축한 물건”(D 147)이라고 돌려서 표현한다. 그 순간 독자들은 작품 제목을 통해 그 물건이 ‘진흙’임을 알기 때문에 객관적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마리아의 욕망을 말하는 작품의 서술 기법을 확실히 간파하게 된다.

마리아는 마지막에 「내가 꿈에서 살았던 곳」을 노래함으로써 다시 한 번 자신의 욕망을 드러낸다. 마리아는 구혼에 대한 2절을 부르지 않고 1절만 두 번을 부름으로써 두 가지 효과를 낸다. 부와, 명망과, 사랑을 갈구하는 자신의 욕망을 강조하는 효과와, 구혼에 대한 2절을 부르지 않음으로써 작품 내내 결혼이라는 소재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피해왔듯이 자신의 가장 큰 욕망인 결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것이다.

나는 대리석 홀이 있는 집에서 사는 꿈을 꿔네
하인과 노예가 내 옆에서 있었지
그리고 거기 모여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희망과 자랑으로 여겼다네.
나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자랑할 수 있었네
높은 조상의 이름을,
그러나 나를 가장 기쁘게 한 꿈은,
그대가 여전히 그대로 나를 사랑했다는 것이라네. (D 142)

이런 마리아의 의도를 알아채는 것은 독자뿐만이 아니다. 노래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이 마리아의 실수를 지적하지 않은 것은, 마리아가 자신의 욕망을 직접 밝히

지 않듯이 작품 속 인물들도 그런 마리아의 욕망을 굳이 밝히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작품 내내 비루한 현실을 자신의 욕망의 언어로 가리며 버텼다. 그리고 마리아의 낭만적인 욕망은 “불쾌감을 걸러내는 (그녀의) 둔감함으로 보호되고 길러져 왔다”(Herring 63). 마리아는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유지해왔다. 만약 다른 인물들이 그녀의 현실과 욕망의 괴리를 폭로해버리면 마리아가 삶이 ‘부드럽고 축축한’ 것이 아니라 헤어 나올 수 없는 ‘진흙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며 그녀의 삶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조이스는 굳이 마리아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고 조를 통하여 그녀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표현했다. 조는 마리아의 노래에 공감하고 눈물 흘리는 유일한 인물이다.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에 등장하는 다른 어떤 여성 인물보다도 마리아의 처지에 공감하는 인물인 조는, 남성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여성의 처지에 연민을 느끼고 작품에 표현한 조이스 자신이기도 하다. 비록 조이스가 작품에서 에피파니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여성 인물을 만들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받지만(Scott 16), 그가 이 작품을 통해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성다운 단계에 머물러 있는 노처녀의 욕망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잔인하지 않게 그려냈다는 점은 인정해주어야 한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여성이 모든 것을 갖고자 욕망할 때 그 괴리감이 주는 감정은 분노이기보다는 눈물이었다. 그것은 마리아같이 배우지 못하고 결혼도 못 한 채 나이든 아일랜드 여성과 그녀가 처한 사회적 현실에 작가가 느낀 연민이기도 하다.

IV. 결론

「에블린」과 「진흙」의 두 여자 주인공 에블린과 마리아는 아일랜드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결혼이라는 과제에 직면한 미혼 여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에블린은 프랭크와의 결혼을 통해 아버지의 폭력으로 점철된 집에서 탈출하여 새 삶을 살려고 시도하지만 결국 좌절한다. 젊음, 아름다움, 부 등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노처녀 마리아에게는 결혼이라는 선택권조차 존재하지 않으며, 그녀는 당시 아일랜드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나이든 미혼 남녀들이 넘쳐났던 시대상을

반영한다. 결혼과 가정에 대한 열망은 당시 여성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욕망이며, 결혼을 열망하는 두 여성은 자신의 현실을 벗어나지 못한 채 여성다운 단계에 머물러 있다. 에블린과 마리아가 수동적이며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도 이 두 인물이 여성다운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이스는 수동적이고 마비된 여성들을 비판하거나 조롱하기 위해 작품에 등장시킨 것이 아니다. 그는 당시 아일랜드의 여성다운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상황과 모습을 상세히 그려내어 그의 의도대로 조국의 역사의 한 장을 기록하려고 한 것이다. 그는 여성다운 단계의 여성들에 대해 “여성들의 모습이 매우 복잡”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제한적인 사회 조건에 갇혀있는 여성에게 연민”(Walzl 53)을 느꼈다. 조이스는 에블린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하는 열린 결말을 만들어 그녀에게 일말의 희망을 남겨 놓았고, 마리아에게는 눈물을 흘린 조를 곁에 두게 함으로써 조이스 자신이 여성들에게 가진 공감과 연민을 표현하였다. 여성다운 단계의 에블린과 마리아를 여성비평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조이스의 여성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이지도, 그렇다고 긍정적이지도 않다. 다만 그가 여성들의 처지에 공감하고 그들을 여성다운 단계에 머무르게 만든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표현함으로써 사회와 여성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드러낸 것은 그의 페미니스트적인 면모라고 볼 수 있다. 여성비평을 통해 조이스의 다른 작품들 속 여성들을 폭넓게 연구한다면 그의 여성에 대한 태도를 더욱 분명히 살필 수 있을 것이다.

(고려대)

인용문헌

- 박소영. 「마비된 영혼과 욕망의 언어: 조이스의 「진흙」에 구사된 이중서술전략」. 『제임스 조이스 저널』, 22권 2호, 2016, pp. 91-111.
- 박윤기. 「여성주의 관점에서 읽는 제임스 조이스」. 『영어영문학』, 51권 2호, 2006, pp. 283-303.
- 식수 엘렌. 『메두사의 웃음/ 출구』. 박혜영 역. 동문선, 2004.
- 안정숙. 「제임스 조이스의 여성인물과 대중담론—거티와 에블린을 중심으로」. 『영어영문학연구』, 45권 1호, 2003, pp. 83-98.
- 임경규. 「에블린은 움직일 수 있는가?: 「에블린」의 「마비」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 『제임스 조이스 저널』, 17권 1호, 2011, pp. 27-46.
- Heilbrun, Carolyn. “Afterword.” *Women in Joyce*, edited by Suzette Henke and Elaine Unkeless, U of Urbana P, 1982, pp. 215-16.
- Herring, Phillip F. *Joyce's Uncertainty Principle*. Princeton UP, 1987.
- Ingersoll, Earl G. “The Stigma of Femininity in James Joyce’s ‘Eveline’ and ‘The Boarding House.’” *Studies in Short Fiction*, vol. 30, no. 4, 1993, pp. 501-10.
- Inglis, Tom. “Origins and legacies of Irish Prudery: Sexuality and Social Control in Modern Ireland.” *Éire-Ireland*, vol. 40, no. 3&4, 2005, pp. 9-36.
- Joyce, James. *Dubliners*. Annotated with a critical introduction by Dauk-Suhn Hong. Shinasa, 2010.
- . *Selected Letters*. Edited by Richard Ellmann, Viking, 1966.
- Kenner, Hugh. “Molly’s Masterstroke.” *James Joyce Quarterly*, vol. 10, no. 1, 1972, pp. 19-28.
- Kershner, R. B. *Joyce, Bakhtin, and Popular Literature: Chronicles of Disorder*. U of North Carolina P, 1989.
- Kim, Yeonman. “James Joyce’s (Self-)Subversive Textuality and L’Ecriture Féminine.” *The Journal of Modern British & American Language & Literature*, vol. 23, no. 1, 2004, pp. 143-58.
- Lawrence, Karen. *The Odyssey of Style in Ulysses*. Princeton UP, 1981.

- . *Who's Afraid of James Joyce?* UP of Florida, 2010.
- Mullin, Katherine. "Don't Cry For Me, Argentina: 'Eveline' and the Seductions of Emigration Propaganda." *Semicolonial Joyce*, edited by Derek Attridge and Marjorie Jowes. Cambridge UP, 2000, pp. 172-200.
- Norris, Margot. *Suspicious Readings of Joyce's Dubliners*. U of Pennsylvania, 2003.
- Oh, Gilyoung. "Teaching Feminist Theory through James Joyce in Korea." *The Journal of Teaching English Literature*, vol. 7, no. 1, 2003, pp. 135-58.
- Reinares, Laura Barberan. "'Like a Helpless Animal'(D 41)? Like a Cautious Woman: Joyce's 'Eveline,' Immigration, and the Zwi Migdal in Argentina in the Early 1900s'" *James Joyce Quarterly*, vol. 48, no. 3, 2011, pp. 529-33.
- Scott, Bonnie Kime. *Joyce and Feminism*, Indiana UP, 1984.
- Showalter, Elaine. *A Literature of Their Own*. 1976. Princeton UP, 1999.
- Walzl, Florence L. "Dubliners: Women in Irish Society." *Women in Joyce*, edited by Suzette Henke and Elaine Unkeless. U of Illinois P, 1982, pp. 31-56.
- Williams, Trevor L. "Resistance to Paralysis in *Dubliners*." *Modern Fiction Studies*, vol. 35, no. 3, 1989, pp. 437-57.

Abstract

Re-reading “Eveline” and “Clay” by Gynocritics

So-yeon Kim

This study attempts to re-evaluate James Joyce and his works by Elaine Showalter's gynocritics. He has been stigmatized as a feminist or anti-feminist but there are problems in this contrary evaluation. According to Showalter's gynocritics, female literature has been changed as other subcultures has and it has gone through three phases: feminine phase, feminist phase, and female phase. Specifically, Eveline in “Eveline” and Maria in “Clay” are the women in the first phase, feminine phase, where women conform to and reproduce the patriarchal ideology. They try to gain men's prestiges such as money, mobility and power by marriage or fantasies about it. These seemingly paralyzed and passive women have been the grounds which make James Joyce an anti-feminist, but they are the results which he tried to make with sympathy and compassion as a plain record of women at that time in Ireland. Through this lens, we can evaluate James Joyce by gynocritics in a new way, out of a black and white contrary way of judgement, and shed the new light on his attitudes towards women and women in his works.

■ **Key words** : James Joyce, Dubliners, “Eveline”, “Clay”, feminism, gynocritics
(제임스 조이스, 더블린사람들, 「에블린」, 「진흙」, 여성주의비평, 여성비평)

논문접수: 2019년 5월 28일

논문심사: 2019년 6월 17일

게재확정: 2019년 6월 26일